

권율도원수 제421주년 이치(梨峙)대첩제 봉행

“임란초기 육전 대승전적지를 찾아서”



△8.26 이치대첩기념제가 진산면 충장사에서 개최되고 있다.

지난 8월26일 월요일 10시에 충남 금산군 진산을 묵산리 이치 대첩지(충장사 사당)에서 금산군 주 최, 이치기념제추진위원회 주관, 행사에 박동철 금산군수, 김복만 금산군의회의장, 충남도의원, 금산경찰서장, 관계기관 및 지역유림, 의용소방봉사단체, 지역 군부대 행사장병 등과 안동권씨 대종원에서 권경석 사무총장, 권범선 창화공중회장, 권호준 대전종친회장, 권경관 금산종친회장 및 권영의 만은공중회장(순장), 금산군민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치대첩 기념제행사가 엄숙히 봉행되었다.

대첩제 진행에 앞서 현종대 추진 위원장은 무더운 여름날 대첩제를 빛내기 위하여 참석하신 내빈에게 감사하며 이치대첩제는 임진왜란 육전 3대첩 중 최초의 승전지인 역사적 의의와 권을 도원수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기념제이며 대첩비는 충남 문화재자료 제25호로 지정되었고 대첩지는 문화재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받아 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도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외삼문과 진입계단을 이전 공사 계획으로 있다고 하였다.

이날 행사는 이치대첩 기념제 추진위원회 감성일위원의 사회로 진행, 내빈소개는 금산군수, 금산군의회의장, 조범형 금산경찰서장, 박천순 금산교육청 교육장, 김현묵 금산소방서장, 김석근 충남도의회의원 등과 군부대 대대장 그리고 권문(權門)에서 권정달 대종원 총재를 대신해서 사무총장, 문종대 부 등을 모두 소개하였으며 제전진행은 금산군 유림 12분, 제례악은 충남연정국악원에서, 육국1970부대장병의 조총발사를 시작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는 축사에서 무더운 날씨에 지역단체장, 주민 특히 안동권씨 임직원 여러분의 참례에 감사드리며 임진란 육전 최초승전지인 이치대첩 유적지를 보존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고 김만복 의회의장은 이치대첩의 승전으로 호남을 사수한 권율도원수의 업적에 감사를 표하였다.

제2부 기념제공연은 금산문화예술포육원의 모듬북 공연에 참가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행사를 마치고 점심은 금산군 의용소방대



△박동철 금산군수가 초헌례를 올리고 있다.

는 축사에서 무더운 날씨에 지역단체장, 주민 특히 안동권씨 임직원 여러분의 참례에 감사드리며 임진란 육전 최초승전지인 이치대첩 유적지를 보존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고 김만복 의회의장은 이치대첩의 승전으로 호남을 사수한 권율도원수의 업적에 감사를 표하였다.

제2부 기념제공연은 금산문화예술포육원의 모듬북 공연에 참가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행사를 마치고 점심은 금산군 의용소방대



△삼현관과 일자의 초헌관 사당 인예

(고동수)에서 자원봉사로 참제원들에게 후의를 베풀었다.

안동권씨측에서는 권경석 사무총장이 금산군직원과 유림 지역 단체장 및 지역 주민 등이 대첩제를 빛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열성을 보이고 있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였다.

이날을 기념하여 안동권씨대종원 권정달총재와 대전 참의공중중 권호준이사장 등 화환을 보내왔다. 1592년 광주목사(光州牧使) 권을

는 없다! 죽음만 있고 삶은 없다.”라는 결의에 찬 독전으로 정예주력을 맞아 궤멸시키는 대첩으로 임란최초 육전에서 대승함으로써 호남의 국창을 사수하고 육전에서 전세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 차후 독산성(禿山城) 세마(洗馬)전투와 행주대첩으로 한양을 수복하고 임란을 종식시키는 전기를 마련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투였다.

이치전투에 앞서 음력 7월 7일 김제군수 정담 등은 왜군에 맞서 전라도 응치(熊峙,진안-완주 사이 골터재)에 진을 치고 조선군은 첫날 분전 끝에 수천의 왜적을 격퇴했으나 다음 날 아침 적군은 병력과 화력으로 백병전으로 진격해와 조선군은 마지막 3일이 무너졌고 군수 정담까지 장렬히 순절하였다. 왜군은 조선 의병과 관군의 시신을 모아 큰 무덤을 만들고 전주로 향하는 진로를 뚫었으나 조선군의 기개에 놀려 전주성 밖 안덕원에 머물다가 물러갔다.

이치대첩비는 연재 송병선(宋秉璿)이 지은 비문을 새겨 금곡사(金谷祠)와 함께 1902년 금곡에 건립하였는데 1940년 일경(日警)의 만행으로 이 비와 사우(祠宇)가 파괴되어 현재 비석(碑石)은 1964년 진산면 묵산리에서 이치를 바라볼 수 있는 산 중턱에 다시 세운 것이다. 행사를 모두 마치고 대종원 경석 사무총장, 범준 홍보부장과 창화공병선회장, 웅치인근지역 전북 순창 일(음력)에 1천여명의 의병(義兵)을 모집 관군을 포함 총1,500여명과 왜장 소조천웅경(小早川隆景)이 이끄는 정예 1만5천여 명과 금산에서 전주로 접근하는 대둔산자락 길목 이치계곡에서 대치하고 전투에 앞서 휘하 장졸들에게 “오늘의 싸움은 진격만 있을 뿐 후퇴

장군은 군사를 모집해 7월에 진안의 웅치로 군사를 나누어 주고 1천의 병력으로 금산으로부터 오는 왜적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 이곳 묵산리(이치재)는 권율장군이 임진란 초기 선조25년(1592년) 7월 20일(음력)에 1천여명의 의병(義兵)을 모집 관군을 포함 총1,500여명과 왜장 소조천웅경(小早川隆景)이 이끄는 정예 1만5천여 명과 금산에서 전주로 접근하는 대둔산자락 길목 이치계곡에서 대치하고 전투에 앞서 휘하 장졸들에게 “오늘의 싸움은 진격만 있을 뿐 후퇴

〈편집부, 권범준 홍보부장〉



△충남연정국악원이 이치대첩제례악을 연주하고 있다.



△권문의 종친화장들이 분향하고 있다.



△금산문화예술포육원단원들이 이치대첩기념공연을 하고 있다.



△지난 8.13 창열사에서 웅치전 추모제 행사를 하였다.



△웅치전적비(전북기념물 제25호)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세동리의 골터재

대종원 총재단 복달임모임

대종원(大宗院)은 8.12일 말복(末伏)에 총재단(總裁團) 20 여명이 종로구 관훈동소재 복달임 전 문집에 모여 화가에애한 가운데 삼계탕(蔘雞湯)으로 더위를 시키며 답소를 나누었다.

권정달 총재는 말복인데도 오늘 서울 기온이 가장 높아 연로(年老)하신 분들이 나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준비한 음식이 변변치 않아 죄송하다고 피력하고 오늘 장소가 사람들로 번잡하여 줄을 서고 있으니 시원한 커피집으로 옮겨 좌담회(座談會)를 갖기로 하고 커피전문점으로 이동하여 시원한 냉커피를 마시니 더위는 한결 가신듯 하였다.

서울지역은 지난해 총재단 정기모임으로 화산회(火山會)를 개최(開催)해 오다가 모임이 저조하여 운영위원회로 대체기로 하였다.

금년은 확대(擴大)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를 삼계탕으로 하면서 좌담회를 가지려고 마련한 행사인데 지방(地方)에서는 원거리로 참석을 못 하고 서울 경기지역 총재단단 하였으며 날씨가 33도



△대종원 총재단 말복 달임에 참석하여 무더위를 식했다.

이상 오르내리니 음식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소란하여 못내 아쉬움이 남았다. 그나마 권홍섭 고문이 양주1병을 선물하여 양주를 곁들리고 삼계탕은 권영훈 감사가 찬조하고 커피는 권영선 부총재가 찬조하니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 불쾌지수(不快指數)도 높는데 연로하신 많은 분이 우의(友誼)를

다지자고 참석(參席)해주셔서 재삼 감사(感謝) 드린다.

참석하신분 : 權正達 總裁, 權泰日 顧問, 權洪燮 顧問, 權赫昇 常任副總裁, 副總裁 : 權重熏, 權讚赫, 權寧鮮, 權五鴻, 權圭華, 權赫基, 權五泳, 權鳳道, 權寧祥, 權五春, 權寧焄 監事

(편, 사진 권범준기자)

권용만 공 고택 전통예술제(古宅 傳統藝術祭) 성료

2013년 7월 27일 안동시 길안면 대사리에 소재한 용만선생(龍巖先生)의 고택(古宅)인 산전재(山泉齋)에서 안동시가 주최하고 (사)안동연예예술인협회(社 安東演藝藝術人協會)가 주관하는 고택전통예술제(古宅傳統藝術祭)가 “예해라고향의 개울이야”라는 슬로건 아래 안동시청 관계자와 많은 주민과 출향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이곳 산전재는 처음에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성산하(星山下) 낙강변(洛江邊)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안동권씨 23世 용만 권 기(龍巖 權紀)선생께서 거쳐하시며 일찍이 충장공(忠莊公) (만취단 권 율 도원수)의 부탁을 받아 1604년 안동 16권을 만들어 백대(百代)가 나오는바 근원(根源)과 분파의 소밀(疏密)함을 16권 안에 찬연(燦然)이 빛나게 하여 친족간(親族間)에 소양면 신촌리 웅치재의 전적지 답사를 위해 출발하여 손영수 이장의 안내를 받아 창열사(淸烈祠)에 도착하니 부귀면 관계관이 영접하였다. 이어서 이장의 안내로 소양면 신촌리 소재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인 전적비(戰績碑)를 둘러보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웅치전은 왜군이 해로(海路)가 막히자 무주, 금산, 진안으로 군대를 집결시켜 호남을 점령하려고 웅치로 쳐 들어왔다. 김제군수 정담 나주관판 이복남 의병장 황학 등이 왜적과 분전한 곳이다. 친절히 안내해준 손영수 이장에 감사드린다.

이제 공개서 지은 시(詩)가 있으니 이르기를

팔년수보칠년지(八年修謄七年誌) 십오년간왕비신(十五年間王貴神) 양안홍훈종폐업(兩眼昏翳終廢業) 상두감한난사진(床頭堪限亂書塵)

‘팔년 동안 작보하고 칠년간 영가지에 15년을 혹독하게 정신을 소비했다

출연히 두는 어두워 끝내 일할수 없으니 책상 위 흐트러진 문서 한을 감내 한다네.’라고 하였으니 용만선생이 편수한 을사보(乙巳譜)의 서문(序文)에 “만력 무자



△7.27일 안동길안 용만선생 고택 산전재에서 예술제가 열렸다.

(戊子)선조 21년 가친의 명으로 세보를 뒤었는데 지극히 반대하였다.

임난(壬亂)에 분심하여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던차 도원수(都元帥) 율(栗)이 시조(始祖)묘소에 제사(祭祀)를 지내고 회의(會議)를 하였는데 종로(宗老)가 ‘성화보의 서판(書板)이 본부에 있었는데 왜적에게 잃었고 인쇄본도 수가 몇 안되어 권씨의 불행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서울에 수보할 사람이 있을 것인즉 영공께서 부탁하여 이름이 여뵈겠습니까?’ 하니 원수 이르기를 ‘여러분 하교를 잊지 않았으나 모임에 100 여인이나 되니 이중에 부탁할 분 없겠습니까?’ 원로가 답하되 ‘권기(權紀)가 가능합니까’ 원수가 부탁하니 다시 수보(修譜)함에 힘써 선령(先靈)을 위로하고 권진(權鎭)이 지필 자금을 주었고 권행가(權行可)와 권중상(權重

常)과 힘을 합하여 사방에 통문(通文)을 보내 8년간 전심으로 수보하니 16권이있다.

외파(外派)를 상세하게 한 것은 성화보에 의한 것이고 보첩이 밝으면 찬하게 하는 도(道)가 서고 풍속이 바르면 치료(治敎)가 이루어진다. 을사년(乙巳年) 용만(龍巖) 권기(權紀) 기록한다.”

이와 같이 큰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서 깊은 산전재(山泉齋)는 주인이신 용만선생(龍巖先生)께서 돌아가시고 여러 번의 병난(兵亂)을 겪으면서 자손들은 항상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길안(吉安) 대사리(大寺里)로 이사를 하였으니 연대는 황림(荒遠)하고 산전재 옛 터는 막연(漠然)하였다.

〈2면에 계속〉

安東權氏宗報

총시: 송조이념학림·애족사상고취 후학계도기묘·사회윤리배양

발행인 권정달 편집인 권경석 인쇄인 권영웅

발행장소 : 안동권씨대종원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5-3(2층)
우: 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안동시무소 : 경성북도 안동시 태화동 418-1(3층)
우: 760-905 전화 (054) 854-2256 FAX (054) 854-2257
태사묘 연락소 : (054) 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 (서재)

E-mail : ankwon2695@naver.com / ankwon2695@nate.com

편집위원	권계동, 권오복, 권혁재, 권승세
기 자	권영진, 권범준, 권혁세, 권경일, 권오인
자문위원	권중달, 권인호, 권영한, 권영섭, 권오창

예금주 및 계좌번호
권 경 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안동권씨대종원) 농 협 076-02-247343

종보사(개인독자) 우체국 : 종보사 010108-01-000369